

전북권역 재난거점병원 시설·장비 강화 추진

도,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한 때부터 응급의료대응 재난의료지원차량 교체·응급의료지원 물품 보급

전북도가 올해 상반기 중 다수 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재난의료차량 교체 등 도내 재난거점병원의 시설·장비를 확충한다.

전북권역 재난거점병원은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으로 재난 등의 다수 사상자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의료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지정됐다. 의료장비와 긴급구호약품을 가지고

재난현장으로 출동해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재난의료지원팀과 재난의료지원차량을 갖추고 있다.

재난의료 지원차량은 유사시 재난현장 출동기준 72시간 동안 외부의 지원 없이 원활한 현장응급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물품을 갖추어 재난현장에서 응급실 수준의 처치를 할 수 있다. 재난의료 지원차량의 응급의료지원

물품은 행정물품,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의료물품, 기관 삽관 장비세트 등 의상처치물품, 수액제 등 의약품 51종을 구비해 재난현장에서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통해 현장 응급의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전북도는 올해 재난의료지원차량 2대 중 부속적 1대를 교체해 3.5~5톤 규모의 차량을 새로 도입하고, 유효기간이 도래된 의료물품과 의약품을 확충하는 등 시설 및 장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의료지원차량을 포함한 응급의료지원 물품에 대해 전북응급의

료지원센터 및 재난거점병원과 합동으로 반기별 1회 점검을 시행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논의해 재난현장 의료지원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의료정책관 "지자체, 재난거점병원,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 간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재난장비·물품 관리를 통해 대규모 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00억 확보

어촌 주민 삶의 질 제고, 어촌 재생·혁신성장 견인

전북도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고창군이 최종 선정돼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해양수산부 대표 국정과제로 어촌의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2023~2027년까지 5년간 어촌지역 300개소에 총 3조원을 투자해 어촌지역을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고, 어촌지역에 꼭 필요한 보건·복지, 문화, 돌봄 등 생활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선정된 5개소(450억원) 모두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어촌의 지속 가능한 모델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고, 어항 및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공모에 참여한 11개 시·도 151개소 중 31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고창 하전권역은

어촌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편지락스레이션(물품, 주거, 교육, 사랑방 등) 어촌 생활서비스 개선과 리폼 스테이션(패류껍질 처리기), 마을회관 리모델링, 트랙터 주차장 및 어항시설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 선정을 위해 해당 어촌지역에서는 가업조건 완화 및 개방으로 귀어·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환경 조성을 조성했다. 타 지자체와 차별성 있는 사업구성과 함께 도, 고창군, 정치권이 원팀으로 공조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어항시설 현대화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추진하고 있는 어촌 뉴딜300사업과 연계해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시너지효과가 예상된다.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현재 어촌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가속화로 지역소멸 위기의식이 팽배하다."며, "이번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어촌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정립해 활력 넘치는 살고 싶은 어촌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침수 분야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현장행정

180억 규모 안전진흥시설 구축 중 성능시험·인증 플랫폼 활용키로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구축 중인 침수 분야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에 대한 현장행정을 통해 침수 분야 메카로 성장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논의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은 2023년 행정안전부에서 최초로 선정한 사업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2023년 1월)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해 재난 유형에 특화된 재난안전 제품·기술의 성능시험·평가·인증 등 플랫폼 구축과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제품·기술 연구개발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설치된다.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구축 중인 침수 분야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에 대한 현장행정을 통해 침수 분야 메카로 성장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논의했다.

축, 관련 기업 집적화로 전북이 침수 분야의 대표지역이 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구체적으로 1차년도에는 배수펌프 내구·성능 시험장비, 침수안전 제품 설계 프로그램 등의 수방장비 성능평가 장비를 구축하였다. 올해, 2차년도

에는 가상 성능시험 시뮬레이터, 차수 제품 성능평가 등 모사 침수 환경 내성·신뢰성 평가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후 3차년도에는 준설제품 및 침수관련 제품 내환경성 평가 인증 지원, 4차년도에는 침수안전 제품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구축한 진흥시설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재난안전기업이 전북에 오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정기구(KOLAS)의 침수 제품 인정 절차가 필수적인 만큼 향후, 인증체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비점오염원 저감·관 협업 수질보전사업 추진

전북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새만금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비점오염원·민간단체를 11일부터 16일까지(1월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지역 민간환경단체와 협업해 비점오염원 저감 등 수질보전활동을 지원, 새만금 상류하천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의 수질보전활동 사업 범위는 크게 △수중 및 수변 쓰레기 수거 등 수질오염원 제거 활동, △쓰레기 흡수투기 지역에 꽃길조성, △하천변 불법소각장 등 감시 활동, △주변마을·학교 등에 새만금 수질보전 관련 교육·홍보 활동 등이다.

이 밖에도 참여단체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제안하는 창의적이고 독

창적인 사업 등도 발굴해 신청할 수도 있다. 전북도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4개 단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선정단체당 1년 수질보전활동 사업비로 평균 1천8백만원 내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사업계획의 사업량 및 수질개선 효과 등을 검토해 지원 사업비를 차등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단계의 공정성을 위해 전문가 등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자체심사단을 구성해 1차 사전심사 후 전라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www.jeonbuk.go.kr)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www.kosims.go.kr) 누리집에 게재된 공모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관련 서류를 작성해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청 새만금수질개선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활용 제고 방안 논의

전북도, 관계기관 회의 개최

전북도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0일 전북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전북지역 신재생에너지산업 혁신인프라 구축사업 8개 시설별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도 산업과 연계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핵심인프라 구축 시설별 수행상황과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대응방안, 도내 산업과의 확대 연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서 향후 전북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실효성 있는 육성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도내 산업과의 연계방안은 좀 더 구체화하여 기업 유치, 국가사업화 등을 통해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혁신인프라 구축 사업 중에서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고분자 열전도도형 새만금수질개선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은 2023년에 완공되어 2024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는 국내 관련 사업 침체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모듈 시험인증 평가 등을 추가하여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한편 도내 태양광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시험 성능평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분자 열전도도형 신재생평가센터는 스마트엔지니어링을 활용한 프로토타입 스택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열전도도 신재생 평가센터 건립을 통해 도내 수소 기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는 지역 에너지 육성정책 수립, 대규모 신규사업 발굴, 에너지특화기업 육성·지원 등 에너지 종합지원 기관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해상풍력산업 지원센터,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풍력 핵심소재·부품 종합시험기반 등 3개 시설은 2024년에,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신재생에너지 ESS 안전성 평가센터 등 2개 시설은 2025년 완공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